

붙임 1

한의학 건강돌봄 사업 개요

- (추진근거) 「한의학 육성법」 제13조제5항제9호, 「제4차 한의학 육성발전 종합계획」 I-1 한의학 건강돌봄 활성화
- (목적) 한의학의 강점(예방의학적 성격 등)을 살린 지역사회 건강돌봄(건강복지+사회복지) 서비스 추진을 통한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
- (대상자) 지자체 자체적 선정 기준(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 (사업 기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16개 지역, '19~'22년) →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12개 지역, '23~'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35개 한의원, '22년 12월~)
- (서비스) 한의사의 자택 방문진료와 함께 간호사·사회복지사와 연계한 포괄적 돌봄 제공
 - * 장기요양 등급 신청, 복지용구 제공, 재가 돌봄서비스 및 재택 임종 연계 등
- (실적) 「한의학 건강돌봄 모니터링 및 평가」 사업 '21년 개시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전년대비 증감률
기초 지자체 수	정부주도	12개	13개	14개	29개	107.1%
	지자체주도	-	3개	4개	9개	125%
지자체 수(소계)		12개	16개	18개	38개	111.1%
서비스 이용자 수		986명	1,706명	1,153명	1,516명	31.5%
서비스 제공 한의사 수		81명	103명	129명	213명	64.7%

항목	한의학 건강돌봄 사업	사업 추진체계
실행기관	지자체, 지역한의학사회	
서비스 형태	장소: 자택 방문 내용: 방문진료 서비스 제공 및 건강복지 서비스 연계 제공	
대상자	지자체 자체적 선정 기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정부 주도형	국비 50%, 지자체 50%*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예산	지자체 100%* *연계 가능한 사업 활용 가능	

○ 한의학 건강돌봄 서비스 대상자 실제 사례

【 실제 사례 1 】 “ 방문진료로 다시 태어난 한의사 주치의 ”

◆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초등학생 딸을 둔 000님은 ‘중풍후유증’으로 한의 방문진료를 지자체에서 의뢰하였으나, 전형적인 중풍 후유증과 차이가 많아 한의사는 종합병원을 연계하여 000님은 '21년 희귀난치성질환(루게릭)을 진단받게 되었다.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 혜택(본인부담금10%) 외에도 희망재단 연계를 통해 의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외에도 한의사가 장기요양등급 등급('22.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판정을 도와 000님은 환자용 침대 등 복지용구를 지원받게 되었으며, 지자체의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를 통해 더 나은 주거환경(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었다. 이후에도 한의사는 배우자의 우울증 등 정신 상담 등 진료하며 정신장애 등급 판정을 도왔다. 이는 한 가정의 주치의 역할을 한 셈이다. 현재 000님은 스스로 취미, 종교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딸의 초등학교 입학식에도 함께할 수 있게 되었다.

< 한의학 건강돌봄 홍보영상 인터뷰 중 (000님/루게릭병 진단) >

“제가 병원에서 루게릭병으로 진단받은 것은 '21년 5월이고요, 아시겠지만 루게릭병은 특별히 뭐 치료약이라던가 치료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제 제 체질에 따라서 바꾸면서 한의학 복용을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고요, 그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주일에 2회 정도 오셔가지고 계속 침 치료하시고 했던 것이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됐죠, 솔직히 지나간 얘기로 지금은 아니지만 대소변도 집사람이 다 받아내고 그랬거든요, 완전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제 지금은 뭐 제가 화장실도 가고 샤워도 하니까 지금 많이 호전이 됐죠, 제 몸이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것이 저는 치료 결과라 생각해요, 디테일한 부분을 정말 많이 신경 써주세요, 조금 어디가 변화가 생기면 거기에 맞춰 약도 항상 바꿔주시고 선생님 만나고 치료받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실제 사례 2 】 “ 최노인(가명)이 걷는다 ”

◆ 경상남도 거제시에 사는 90대 최노인은 장기요양 1등급 와상 환자로, '21년2월 이유 없이 의식이 없어지며 거동이 불가능해 혼수상태로 119를 불러 인근 병원으로 내원하였다가 대학병원으로 바로 전원 조치되었다. '섬망증'으로 진단되었으며, 병실에서 고성과 난동으로 침대에 사지를 포박하여 관리하다 결국 강제 퇴원하여 재택에서 모시게 되었다. '23년 1월에 재택 의료센터에 처음 따님이 요구하는 최노인의 치료는 허리 통증을 위주였으나, 나는 화병 위주로 치료를 하였다. 최노인의 따님의 말을 빌리자면 유년시절 고무신 신기도 어려운 시절에 하얀 운동화를 신고 다닐 정도로 부유했다고 한다. 그러다 하루아침에 사업이 실패하게 되며 남의 집에 얹혀사는 신세가 되었다. 최노인은 일을 하던 중 동네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고, 그날 이후 밖을 나가지 않고 하루종일 멍하니 잠을 자고, 말도 안하고, TV만 멍하게 보는 나날들이 계속되었다. 그렇게 아주 오랜 기간을 보내다 '21년에 섬망증이 온 것이다. 한번은 최노인에게 '할배, 아따 오늘 일도 끝났고 피곤한데, 할배가 막걸리 한병 받아주면, 오늘 한잔 하고 자고 갈게요' 라고 농을 던지니, 최노인은 '오냐, 그래 막걸리 사온나 한잔 하자'로 응답했다. 이 대화를 통해 나는 최노인이 다시 동굴밖으로 나와서, 강한남자가 될 수 있을 것도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마 최노인이 외래로 내원하였다면, 난 허리치료만 집중했겠지만, 30분간의 방문진료는 외래진료 10회 이상의 정보를 주며, 많은 대화는 환자 파악에 큰 도움이 된다. 결과적으로 '23년 3월경에는 손잡이를 잡고 스스로 일어섰고, '24년 3월 14일 화이트데이에 혼자 걷게 되었다. 재택에 머무르는 환자들은 얼마만큼 몸을 움직일 수 있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 간호하는 가족들도 마찬가지이다. 최노인의 경우 방문진료와 방문간호, 영양보호사의 세심한 돌봄과 운동 보조, 가족들의 관심 등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자립 보행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올해는 65세이상 노인인구 1,000만명, 장기요양환자 120만명의 시대가 된다. 의료 및 통합돌봄은 혼자서는 할 수 없기에 직종간 협력을 통해 같이 해나가야 할 것이다.

【 실제 사례 3 】 “ 잘 먹는 게 남은 겁니다. ”

◆ 대전광역시 중구에 사는 70대 중반의 000 어머니는 독거중이며 기초수급자다. 과거부터 현기증, 식은 땀, 무기력과 피로감을 자주 호소하셨고, 점차 거동이 힘들어지면서 방문진료를 요청하셨다. 우리 팀은 평소처럼 포괄평가와 함께 영양평가와 혈청검사를 진행했고, 안타깝게도 빈혈 초기 수치와 단백질 부족이라는 걱정했던 결과가 나왔다. 나름대로 잘 챙겨먹는다고 자부하셨던 어머니는 내심 충격을 받은 눈치였다. 이미 우측 고관절염 진단을 받고 인공관절 치환수술이 결정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료진의 걱정도 배가 되었다. 외부 교류도 없는 어머니가 홀로 수술 후 재활과 회복은 어떻게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우리는 먼저 영양 보충을 위한 식단부터 알려드리고, 사회복지사의 연계를 통해 000의 통합돌봄사업과 식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동작이 빠른 우리 팀의 복지사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는 하나라도 더 챙기기 위해서 인공관절수술 지원 조례도 알아보고 부지런히 연락을 돌렸다. 어머니는 ‘억지로라도 (의료진이 알려준) 들기름, 계란, 고기 등을 잘 챙겨먹겠다’고 약속하셨고, 기력을 보충하고 소화흡수를 도울 수 있는 한약들을 처방하였다. 모두의 걱정과 불안 속에서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1개월간의 입원 뒤에 재가 요양으로 전환되어 다시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보통의 노인 환자분들처럼 통증과 체력저하로 많이 힘들어 하셨다. 그런데, 어느 훌륭한 영양사 선생님이셨을까? 예상보다 잘 균형잡힌 구청의 지원 식단과 함께 영양 보충을 위한 음식을 잘 챙겨드시고 의료진의 교육 내용을 충실히 지키면서 어머니는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셨고, 약 5개월 뒤 다시 실시한 혈액검사의 결과는 모두 정상 수치로 회복되었다. ‘수술하고 아예 못 걸으면 어찌냐’고 걱정하셨던 어머니는 이제 어지러움도 많이 줄었다고 좋아하신다. 의료와 돌봄이 함께 작동해야 함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주신 어머니, 침구 치료와 방문 간호를 통한 재활도 순조롭게 진행중이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언젠가는 혼자서 꽃구경을 갈 수 있는 날을 꿈꾸며, 오늘도 열심히 고기를 드신다.